



납고 거대한 인도 철도... 3중추돌 최소 275명 사망 지난 2일(현지시간) 인도 동부 오디샤주 발라소르에서 열차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며 내동댕이쳐진 탈선 열차들. 최소 275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다. 승객 1257명을 실은 여객열차가 신호 오작동으로 선로를 잘못 들어, 정차해 있던 화물열차를 들이받아 탈선한 뒤 반대편에서 오던 여객열차와 다시 충돌하며 사고가 커졌다. 인도 철도망은 설비 노후화와 운영 미숙으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 관계기사 12면 [AP=연합뉴스]

문재인표 '과잉 태양광' 때문에 비용 싼 원전 맘대로 못 돌린다

지난달 28일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 본부. 부처님오신날이 낀 연휴였지만 서해안 유일 원전 단지가 가동되는 곳이다. 6호기 주제어실(MCR)에선 6명의 직원이 바빠 움직였다. 이들은 점심 시간에도 배달 온 식판을 책상에 올려 놓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주제어실 한가운데 계기판엔 '100'이라는 붉은 숫자가 선명했다. 이날 6호기가 100%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서 한빛 6호기는 100%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흔들렸다. 올해 봄(3~5월) 한빛 원전에서만 5차례 출력 감소가 이뤄졌다. 6호기도 네 번이나 발전량을 80~85% 수준으로 일부러 줄였다.

태양광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화가 이유였다. 태양광 설비가 밀집된 호남 지역의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송전 과부하와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가장 값싼 에너지원인 원전을 이용하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태양광 딜레마

전력생산만 집중, 송전망 태부족
'원전 구매단가 4배' 태양광 위해
한빛 원전, 올봄 5차례 출력감소



올해 들어 태양광 발전 딜레마가 본격화되면서 그 여파가 원전, 송·변전망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여파로 전기요금도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훨씬 싼 원전 가동을 줄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뒤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설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난 반면, 전력 수요까지

연결해줄 '고속도로' 격인 송전망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엇박자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5GW였던 태양광 설비 용량은 지난달 들어 26.6GW로 3배 이상 됐다. 이들 설비는 수도권(6.8%·지난해 말 기준)보다 설치 비용이 적게 드는 호남(42.1%), 영남(22.6%) 등에 집중됐다.

반면에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실어나를 송전선로 확충은 더뎠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6년 총 송전선로 길이는 3만3696 C-km(길이에 회전 수를 곱한 값)에서 2021년 3만5190 C-km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창양 산업부장관도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송전망 투자가 많이 지체됐다"고 밝혔다.

정중훈 기자, 영광=나상현 기자
sakehoon@joongang.co.kr

>> 5면 '태양광'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민족영웅 발굴" 보조금 챙겨 정권퇴진 운동

민간단체 3년간 314억 부정 사용
윤 대통령 "국민이 보조금 감시할"

A통일운동단체는 2022년 "물민 민족의 영웅들, 히든 히어로를 찾았다"며 62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등 전혀 무관한 정치적 강의를 편성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B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같은 해 청년 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1000만원을 전액 무단 인출해 사적 용도로 쓴 뒤 잡혔다.

4일 대통령이 발표한 '1~4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일제 감사결과'에 나오는 주요 적발 사례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고 보조금을 받은 1만2133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확인된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이었다.(중앙일보 5월 19일자 1면) 감사 대상에서 보조금 3000만원 이하의 제외돼 실제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비영리단체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다양했다. 사단법인 C협회는 이산가족 교류 사업으로 받은 2000여만 원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나 전·현직 임원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비 등에 썼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 6면 '보조금'으로 계속

카피라이터도 AI 때문에 미국서 고소득 전문직도 실직 >> 3면

완전고용 속 경기침체 낯선 길 가는 미국경제 >> 81면

INSIDE

컬처 >> 18·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김태한, 아시아 남성 처음 '퀸 엘리자베스' 성악 우승

(세계 3대 콩쿠르)
'성악계 샹젤' 바리톤 김태한(22·사진)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4일 우승했다.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이 대회에서 한국인 우승은 다섯 번째로, 성악 부문 최초의 아시아 남성 우승 기록이다.



>> 관계기사 18면

MICHAEL J. SANDEL

마이클 샌델

'정의', '공정'에 이어 이번엔
민주주의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만의 정체를 완벽히 밝혀낸 책!"
(월스트리트저널)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중훈 KBS 기자 강력 추천

"샌델 교수가 다뤄온 주제들이 총집결된 결정적 저술!"
김선욱 숭실대 교수

마이클 샌델 지음 | 440쪽 | 20,000원

DEMOCRACY'S DISCONTENT

★★★ 마이클 샌델 ★★★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DEMOCRACY'S DISCONTENT

민주주의의 불만은 과연 어떤가?

자유와 풍요 속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
한계의 시대, 정해진 민주주의의 정체를 깨쳐라

["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정답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학자들 있는
새 고전의 탄생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MiraeN

제17852호 43판